

계용묵의 제주 체험과 문학

김 동 윤*

차 례

1. 머리말
2. 계용묵의 제주 체류 시의 행적과 활동
3. 계용묵의 제주 체험 관련 문학
4.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제주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특히 1951년 1·4후퇴 직후에는 제주도로 밀려들어 온 피난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1951년 5월의 피난민 수가 당시 제주도 토착인구의 절반이 넘는 14만 8794명이었다고 하니,¹⁾ 대단한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대규모의 피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제주사회는 적잖은 변동을 겪게 된다. 피난민 중에는 저명인사들도 있었으므로 제주도로서는 문화나 교육 면에서 새로운 자극과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²⁾ 저명인사들 가운데에는 문인들도 있었던바, 그 중 가장 주목되는 이로는 단연 계용묵(桂鎔默, 1904~1961)을 꼽을 수 있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거의 15만에 육박하던 피난민의 수는 전선의 상황이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대폭 줄어들어, 1952년 초에는 2만8069명이었다고 한다. 부만근, 『광복제주 30년』(문조사, 1975), 116~118쪽 참조.

2)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세림, 2000), 307쪽.

다. 계용묵은 1951년 초에 제주에 와서 1954년 6월에 제주를 떠났다. 계용묵의 체류기간은 3년 5개월 정도였으니, 꽤 오랜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계용묵은 당시 제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는 제주에 거주하는 동안 종합교양지를 창간하고 동인지 간행을 주도하는가 하면 문학청년들을 지도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계용묵의 제주도에서의 행적과 영향 등에 관해서는 그 동안 여러 논자들에 의해 언급되었지만,³⁾ 기억에 의존하고 있거나 자료를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것이 적지 않다. 필자는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논의한 바 있으나,⁴⁾ 필자의 글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이처럼 제주와 관련된 계용묵의 활동에 대한 논의는 많았었지만, 아직까지는 계용묵의 문학에서 제주 체류가 갖는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과 자리매김 작업이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제주와 관련된 계용묵의 작품들도 여태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다. 따라서 기존의 잘못된 논의들을 바로잡는 가운데 계용묵의 제주체험과 문학활동을 좀더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한국전쟁기 제주문단의 양상에 대한 탐색만이 아니라 계용묵 문학을 재인식하는 데도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계용묵의 제주 체류 시의 행적과 활동

평안북도 선천군 출신인 계용묵은 해방 직후부터 서울에 살면서 수선사(首善社)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국전쟁을 만나 제주도로 피난

3)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주문학》 제31집(제주문인협회, 1998)에 실린 '계용묵 선생 지상회고' 특집이다. 1998년 9월 26일 제주시 칠성로에 계용묵 표징비를 세운 것을 계기로 마련된 이 특집에는 다음과 같은 5편의 회고담이 실려 있다.

최현식, 「계용묵 선생에 대한 추억」; 양중해, 「계용묵 선생과 제주도」; 김영돈, 「사람살이의 바탕을 헤아린다—계용묵 선생을 추모하며」; 강통원, 「계용묵 선생과 제주문학」; 고영기, 「'별무리' 시절의 회상」.

4) 김동윤, 「한국전쟁기의 제주 문단과 문학」, 『4·3의 진실과 문학』(각, 2003), 285~316쪽.

을 떠나게 된다. 계용묵의 제주 입도(入島)는 1951년 1·4후퇴에 즈음하여 이루어졌다. “당시의 피난행렬로 보자면 선두 그룹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각 그룹도 아니었”던 그는 “제주시 삼도1동(당시는 ‘제주읍 삼도리’: 인용자 주), 그 당시로서는 제주시 유일의 극장이었던 ‘제주극장’ 남쪽”⁵⁾의 “한학자의 집 마루방에다”⁶⁾ 피난의 보따리를 풀었다. 계용묵이 김환기(金煥基) 화백에게 보내는 서신 형식으로 쓴 글에는 그가 제주에 오게 된 동기가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내가 濟州에 떨어질 적엔 海女가 따는 점복이 맛도 있으려니 돌담 안에 옥어진 동柏꽃의 固有한 情緒가 避難에 쫓긴 애달픈 心情을 어루만져 주려니 하였던 것이 率直한 心情이었고 그리하여 詩味창일한 점복으로 固有한 正緒 속에 마음껏 배불리고 취해 보고 하리라 그래서 짐을 아주 푸러 놓았던 것이 친구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臆測을 비저지게 한 것이오.⁷⁾

인용문에서 보듯 계용묵이 제주에 온 동기는 다소 낭만적이다. 해녀가 따는 전복을 먹으면서 돌담 안에 우거진 동백꽃을 통해 피난의 애환을 달래고 자 제주도에서 짐을 풀었다는 것이다.⁸⁾ 하지만 제주의 현실은 그런 낭만적 정서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는 해녀가 따는 전복 맛도 동백꽃의 정서도 자신과는 인연이 멀었다며 “제주가 발목을 잡은 것은 오직 한 가지 민속적인 정서”⁹⁾였다고 덧붙였다.

여러 정황을 감안해 볼 때 계용묵은 제주에서의 생활을 만족스럽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다. 계용묵은 제주에서 체류하던 동안에 뚜렷한 직장을 갖지 못했다. 그의 부인 안정옥(安靜玉)은 제주읍 관덕정 광장에서 양담배 노점상을 하였다고 한다.¹⁰⁾ 그런 와중에 큰아들 명원(明源)의 결혼식을 치

5) 양중해, 앞의 글, 27쪽.

6) 계용묵, 「소설가란 직업」, 『노인과 닭』(범우사, 1983), 85쪽.

7) 계용묵, 「김환기 형」, 《신문화》 제2호(신문화사, 1952), 27쪽.

8) “처음엔 부산으로 가려고 인천에서 피난민을 실어 나르는 배에 탔으나, 부산에 피난민이 몰린다는 말을 듣고 제주도로 피난하게 된 것”이라고도 한다. 이어령 편저, 『한국문학연구사건』(우석출판사, 1990), 28쪽.

9) 계용묵, 「김환기 형」, 27쪽.

르기도 했다.¹¹⁾

계용묵은 제주읍 삼도리에 살면서 칠성통의 ‘동백다방’과 ‘카네이션다방’에 자주 드나들었고 그곳으로 제주의 문학청년들이 그를 만나러 찾아가는 일이 많았다. 그는 문학지망생들이 쓴 작품들을 일일이 고쳐주며 지도하였고, 작품발표회도 주관하였다. 문학을 지망하는 중·고·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별무리’ 모임을 지도하여 동인지 《별무리》(1953년 12월)를 간행하는데도 기여했는데, 현재 제주문단의 원로들인 강통원·박철희·고영기·김종원·문충성 등은 모두 ‘별무리’의 중심 멤버들이었다. “심지어는 한림중학교의 교지 《한림(翰林)》 창간호를 펴내”¹²⁾기까지 했으니, 제주문화계에 끼친 계용묵의 영향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계용묵은 당시 제주에서 피난생활을 하던 시인 장수철과도 교류했다. 장수철은 1950년 12월말 성탄절 직후 LST를 타고 제주도로 와서 제주읍 화북리에서 거주하면서 《제주산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후(최현식·한낙원 등이 다녀간 후: 인용자 주)에 찾아온 사람은 「백치 아다다」의 작가 桂鎔默 씨였다. 이맛살을 찌푸리고 있는 듯한 특이한 인상의 그는 심심해서 썼다면서 수필 한 편을 꺼내주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그와 나는 매일 만나 부듯가로 산책을 가곤 했다. 그는 원고를 공무국에 넘기고 2시간 이상의 여유가 생길 때쯤 찾아오곤 했다.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은 부듯가로 나갔다.¹³⁾

장수철은 계용묵으로 인해 “고독감을 면할 수 있었다”¹⁴⁾고 했다. 계용묵과 장수철은 1951년에 함께 잡지 창간을 도모하기도 한다. 서울에서 제주에

10) 고영기, 앞의 글, 55쪽.

11) 아들 계명원은 오현고등학교 피난분교에서 영어를 담당했으며, 《신문화》 제3호에 「나족(裸族)」이란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양중해는 계용묵의 아들 계명원이 결혼할 때의 상황에 대해 “예식장은 역시 몇 평 안 되는 작은 다방 ‘동백’, 테이블마다 양과자를 벌여 놓고 치른 조촐한 잔치였다.(앞의 글, 30쪽)”고 술회하였다.

12) 김영돈, 앞의 글, 39쪽.

13) 장수철, 「계용묵 씨와 함께」, 『격변기의 문화수첩』(현대문화, 1991), 76쪽.

14) 장수철, 「부두에서」, 『격변기의 문화수첩』, 300쪽.

피난 온 사업가 최씨가 비용을 대기로 했다며 장수철이 제의하자 계용묵도 동의하여 창간 준비에 들어갔다.

(…) 나(장수철: 인용자 주)는 재직 중이고 하나까 桂鎔默 씨를 주간으로 모시고 잡지를 발행할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소년 시절부터 장난 아닌 장난으로 잡지를 만들던 일이 이제 본격화된 셈이다.

“그것 참 좋군요. 즉시 착수토록 합시다.”

桂씨도 즉석에서 찬성했다. 잡지명을 《제주문화》로 하자는 데도 합의를 보고, 곧바로 신문사 옆에 겨우 테이블 두 개를 놓을 만한 방을 하나 얻었다.

사업가 최씨가 마련해 준 두 개의 책상에 마주앉아 사무를 보기 시작했다. 신문사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나는 틈나는 대로 들러 편집계획 등을 세울 수 있었다.

桂씨는 정기간행물 출판허가원을 공보처에 제출하는 등 심심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편집도 완료되고 출판허가만 나오면 곧 인쇄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끝내 출판허가가 나오지 않았다.¹⁵⁾

애쓴 보람도 없이 《제주문화》의 창간은 불발이 되고 말았다. 장수철은 1952년 7월 18일 부산으로 떠났다.¹⁶⁾ 하지만 계용묵은 이듬해 《신문화》라는 잡지를 창간하는 데 성공한다. 어렵사리 창간하긴 했지만, 전쟁의 와중에 피난지에서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雜誌 한 권 만들어 놓기 참 힘들다. 避難中이라 몸조차 변변히 앉힐 자리가 없어 路上에서 떠돌며 더구나 맨주먹으로 옥여 보자는 것이 원체 無理이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周圍의 空氣가 참 줄은 몰랐다. 이런 空氣 속에서 編輯者의 용기를 돋워주는 同志 몇 분이 있다. 신던 구두를 팔아서 印刷費를 보태준 동지를 생각하면 눈물 없이 이 雜誌를 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資政적인 基礎에서 原稿難에까지 부딪기었다. 여기서 最初의 플랜이

15) 장수철, 「계용묵 씨와 함께」, 78쪽.

16) 장수철, 「드넓은 무대를 찾아」, 『격변기의 문화수첩』, 94쪽에 제주를 떠난 날짜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散散히 깨여지고 編輯이 몇 번이고 뒤바뀌었다.¹⁷⁾

1952년 5월 1일¹⁸⁾ 창간된 《신문화》는 종합교양지였지만 문학과 관련된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계몽목은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서 이 잡지를 간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잡지는 1952년 9월 20일에 제2호, 1953년 1월 1일에 제3호가 나온 후 중단되었다. 이 잡지에는 피난이나 직장 때문에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의 글이 주로 실렸고, 양중해·고영일·정하은 등 제주 사람의 글도 실렸다.

《신문화》가 3호로 중단된 반년 후인 1953년 6월 20일에는 문학 동인지 《흑산호》가 나왔다. 이 책은 제주도에서 최초로 간행된 순수 문학동인지라는 데 의의가 있다. 동인들은 계몽목 등 제주에 피난 왔거나 직장(주로 군·경) 때문에 머무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제주 사람은 양중해 한 사람뿐이었다(1951년 피난민으로 왔다가 제주여인과 결혼하여 정착한 최현식¹⁹⁾을 포함한다면 두 사람이다).

17) 「편집후기」, 《신문화》 제2호, 48쪽.

18) 창간일이 5월 1일로 명기되어 있지만, 실제 날짜는 이보다 훨씬 뒤인 7월 18일 이후였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 하면 장수철이 제주를 떠난 날이 7월 18일이었는데 그의 글에서 “桂씨는 내가 釜山으로 떠난 후 잡지를 발행했다. 우리들이 처음 계획했을 때부터 약 1년 후의 일이다. 그리고 잡지 명칭도 《신문화》로 바뀌어 있었다.”(「계몽목 씨와 함께」, 78~79쪽)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를 떠날 때까지 신문사에 근무하고 있던 장수철이 《신문화》 창간 사실에 대해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19) 최현식은 계몽목의 발간 작업을 도왔다. 장수철의 글에도 “일주일에 몇 번씩 읍에 나와서는 《신문화》를 도와주고 있는 최형”(「제주에 부치는 편지」, 《신문화》 제3호, 35쪽)이라는 언급이 있고, 계몽목이 쓴 《흑산호》 서문에도 “執筆 途中에 詩人 崔玄植君은 召集狀을 받고 壯途에 올온다. 이 무라디 당죽에 君의 우렁찬 北國 사투리가 그림구나. 여기 못 적은 君의 노래는 인젠 칼 끝으로 戰線에다 색이고 오라.”(《흑산호》, 7쪽)며 최현식이 《신문화》와 《흑산호》 발간에 참여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최현식은 자신이 계몽목과 만나 《신문화》 발간 작업을 도운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51년 초가을이었던가. 「5월의 望樓」라는 시가 제주신보에 실리게 된다/ 이런 연고로 해서 하루는 성내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날 칠성로의 동백다방에서 만난 분이 계몽목 선생이었다. 제주신보의 편집을 맡아보고 있었던 장수철 씨의 소개였다/ 이후부터 성내행이 잦아졌고, 동백다방에서 계 선생을 중심으로 모이

《신문화》와 《흑산호》의 제작비는 독지가의 후원과 광고비를 통해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최현식에 따르면 당시 제주도의회 의원이면서 제주주정공장 전무였던 강재량의 도움이 특히 컸다는 말을 계몽목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했고, 양중해는 우생당 서점을 운영하던 고순하의 도움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증언을 듣고 자료를 검토해 본 필자의 판단으로는, 《신문화》의 경우 주로 강재량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흑산호》는 고순하의 지원에 크게 의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문화》에는 계몽목의 이름으로 발표된 글이 「김환기 형」²⁰⁾ 1편밖에 없고, 좌담회의 사회나 토론자로 나온 경우가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신문화》의 내용 중에서 편집부가 썼다고 되었거나 글쓴이를 밝히지 않은 글들이 꽤 많은바, 이것들은 모두 계몽목이 썼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제1호의 글쓴이를 밝히지 않은 글로는 「문화정찰기(文化偵察機)」, 「30년 문단 창작 목록」, 「문화다방(文化茶房)」 등이 있다. 「문화정찰기」에서는 우리 문단에 시인이 너무 많으므로 문단의 위신을 위하여 열댓 사람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문학사(文學史)에는 무명작가는 다루면서 최서해를 거론조차 하지 않아 집필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하는 등 문단 실태를 비판하고 있다. 「30년 문단 창작 목록」은 주요 작가 49인의 처녀작·대표작·창작집 등을 정리하고 있으며, 「문화다방」은 외국작가들의 근황 등 외국문학계 소식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제2호에 실린 「문학 동호인(同好人) 좌담회」에는 김목·김창수·이형근·양중해·최현식·장수철 등이 참석하고 계몽목이 사회를 맡았다. 이 좌담회에서는 문학을 하게 된 동기, 감명 받았던 작품, 문단의 난관 타개책 등

게 되는 문학청년들(피난 와 있었던)과 어울리게 된다/ 그런 어느날, 계 선생은 《新文化》라는 조그마한 잡지를 내자고 하는데, 일을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청하는 말씀이었다/ “심부름 해 드리지요. 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문화》출간에 참여하게 된다/ 《新文化》는 3호로 폐간되고, 계몽목 선생 손에 의해 제주도 최초의 동인지인 《黑珊瑚》의 출간을 보게 된다/ 나는 병영(兵營)에서 우송되어 온 《黑珊瑚》를 받는다.”(최현식, 「민들레의 뜰」, 《제주문학》 제23집(제주문인협회, 1990), 52~53쪽)

20) 김환기 화백과 계몽목이 주고받은 서신인 「계몽목 형」과 「김환기 형」이 ‘서한 왕복’이라는 기호으로 실려 있다. 「김환기 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한다.

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실존주의 명작'이라는 제목 아래 카뮈의 「이방인(異邦人)」을 소개하는가 하면, 톨스토이[杜翁]의 「예술과 매소부(賣笑婦)」도 게재하여 외국문학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문화다방」, 「정지선(停止線)」 등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글들도 실고 있다. 「문화다방」에서는 프랑스에서 조사된 인기작가 순위, 정비석·백철과 관련된 일화, 현상공모에 당선된 작가, 외지문인들의 제주왕래 소식 등을 다루고 있고, 「정지선」에서는 「한글 조선말 사전」·「조선말 큰 사전」 등 국어사전 명칭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제3호의 「장지영 선생을 둘러싸고 제주 피난 2년의 생활을 묻는다」는 좌담회에는 홍완표·황성희·김인지·이인구·장용직·계용묵 등이 질문자로 참여하고, 기록은 고영일이 맡았다. 주로 제주사람들의 정신·기질·성격, 제주어의 특성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계용묵은 돼지를 지고 가는 모습 등에서 느낀 제주여성의 강인성, 물허벅 진 여인들의 아름다움 등 제주여성에 대해 많이 언급했다. 편집부의 「대한(大韓)명작다이제스트—김동인 작 광화사」, 「작가에게 드리는 말」, 《창조》 이후 간행된 문예잡지들을 간결하게 정리한 「대한 문예잡지사(大韓文藝雜誌史)」, 어떤 작품을 써야 하느냐에 대해 말하고 있는 「문단 출세 비결」, 로렌스와 발레리의 소설 세계를 각각 논의한 「정열적인 영감(靈感)」과 「꿈과의 일치점」, 1952년 노벨상 수상 소식을 전하고 있는 「문화다방」, 「미국문단의 인기작품—노인과 바다·기타」 등 문학 관련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다. 「문화영화관—사랑과 왕관의 벽 속에」, 시사용어 해설 코너라고 할 수 있는 「신신사전(新新辭典)」도 마련되어 있다.

제3호에는 또한 편집후기가 아니라 「편집전기(編輯前記)」가 실려 있는 점이 특이하다. 「편집전기」에서는 “뜻있는 이가 좀더 규합이 되면 《신문화》는 아주 소리를 치겠는데… 讀者 여러분의 투稿를 歡迎한다. 특히 濟州에서 아름다운 전설을 캐고 싶다. 爭先투稿하라. 名筆 秋史가 大靜에서 지나던 이야기도 던져주기 바란다. 그럼 來號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²¹⁾라며 다음호를 기약하고 있지만, 끝내 그 기약은 지켜지지 못하고 말았다.

21) 《신문화》 제3호, 7쪽.

《신문화》에 나온 계용묵의 글(혹은 계용묵이 썼다고 판단되는 글)에서 볼 때, 그는 세계문학의 흐름이나 한국문단의 동향 등에 상당히 폭넓은 식견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1920년대 중반 고향에서 4년 동안 세계명작들²²⁾을 탐독하면서 습작에 몰두한 일이 있는데, 그의 문학에 대한 폭넓은 식견의 기반은 이때 마련되었을 것이다.

문학동인지 《흑산호》의 발간 취지와 성격에 대해 계용묵은 「서(序)」에서 “難을 避하여 濟州에 모인 文友들이 보따리를 헤집는다.”²³⁾고 피난으로 제주에 온 문우들을 중심으로 한 작품집임을 말하면서,²⁴⁾ 아직 미숙한 면이 있지만 정열과 기상이 넘쳐흐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모았음을 강조한다. 이 동인지는 앞부분에는 시, 뒷부분에는 산문을 모아 놓았다. 계용묵의 소설 「물매미」 등이 수록되었는데, 「물매미」는 《문예》 1950년 4월호에 발표했던 작품을 재수록한 것이다.²⁵⁾

계용묵은 1954년 8월 제주를 떠난다. 조연현과 함께 《현대문학》을 꾸미게 되었다며 서울로 떠났다²⁶⁾고 한다.

3. 계용묵의 제주 체험 관련 문학

계용묵이 피난지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가 제주에서 집필한 문학작품은 많지 않다. 그가 제주에서 문학

22) 당시 읽은 책들은 “世界文學全集(新潮社), 新興文學全集, 現代日本文學全集(改造社), 明治大正文學全集(春陽堂), 近代劇全集(第一書店), 世界劇全集(近代社), 世界大思想全集(春秋社), 노오벨賞文庫(近代社) 등”(성순이, 「계용묵 연구」(숙명여대 석사논문, 1986), 15~16쪽)이다.

23) 《흑산호》(우생출판사, 1953), 6쪽.

24) 《흑산호》가 ‘문인 환도 기념 문집’이라는 언급도 있다. 계용묵, 『노인과 닭』, 124쪽의 연보 참조.

25) 이 논문에서 《신문화》와 《흑산호》에 관한 사항 중의 일부는 필자가 「한국전쟁기의 제주 문단과 문학」에서 논의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26) 김영돈, 앞의 글, 40쪽.

열기를 북돋고 후진을 양성한 데는 큰 역할을 했지만, 제주가 그의 문학에서 마뜩한 산실(産室)이 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6·25를 당하고 1·4후퇴로 피난살이를 하게 되는 동안 나는 인생이라는 데 흥미를 잃게 되었다. 흥미 없는 인간을 상대로는 붓끝이 움직여주지 않았다. 우금껏 창작에 붓을 못 대고 있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²⁷⁾는 언급을 보면, 계용목이 전쟁기에 제주에 머문 것이 창작 활동의 연속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장수철의 회고에도 보면 계용목이 제주에서 작품을 제대로 쓰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계용목은, 《신문화》 전에 《제주문화》²⁸⁾라는 잡지를 창간하려고 준비했으나 출판허가가 나오지 않는 바람에 좌절되자, 창작에만 전념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는 것이다.

“공연히 헛수고만 했군. 이제부터는 작품 쓰는 데만 힘써야지.”

桂씨는 쓴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 후부터 반년이 지나도록 그는 수필 몇 편만 썼을 뿐 단편 하나 쓰지 못했다.

“왜 단편이라도 한 편 쓰시죠. 신문에 발표해 드릴게요.”

그러나 그는 끝내 쓰지 못했다. 도저히 쓸 수 없었다는 것이다. 쓰려면 「백지아다다」보다 나은 작품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는 걸림돌 때문인 것 같았다.²⁹⁾

계용목이 이 시기에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은 그의 완벽주의³⁰⁾ 혹은 결벽주의³¹⁾적인 성격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그의 글들에서 그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왜 이리 창작이 어려워지는지 모르겠다. 도시 붓을 들기가 끔찍하다. 창작욕

27) 계용목, 「문학적 자서전」, 《신문에》(1958.8); 『계용목 전집 2』, 320쪽에서 재인용.

28) 1957년 문충제주지부에서 간행한 같은 이름의 잡지와는 다른 것이다.

29) 장수철, 「계용목 씨와 함께」, 78쪽.

30) 성순이는 “계용목은 완벽주의자로서 무슨 일에서나 완벽하려는 강박관념을 가졌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의 논문, 23쪽.

31) 이정석은 “결벽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유별난 그의 장인정신”이 그를 과작의 작가로 만들었다고 했다. 「과작의 작가 계용목의 적잖은 미덕」, 민충환 엮음, 『계용목 전집 1』(민음사, 2004), 521쪽.

은 쇠할 줄 모르는데도 쓰기는 을씨년 같다. 이달 그믐까지 60매짜리를 하나 써야 할 것이 있어 구상은 다 짜놓았는데 붓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무에 펜놀음이 지친 탓도 탓이겠지만 원체 창작하면 겁이 앞서게 된다. (...) 썼다는 찢고 썼다는 찢고 하기를 아마 7, 8차는 거듭했으리라. 그러나 역하기는 짝이 없는데 몸은 피로감을 느낀다.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잠깐 누웠다 다시 붓을 들고 일어나 앉았다./그러나 열한 시가 넘도록 그대로 붓방아만 쪼다 말았다.³²⁾

避難 다니면서 展覽會를 다 열고 참 壯하오. 나는 濟州 一年에 무엇을 했는지 그 잘난 作品 나부랭이 하나 못 만들고 路上에서 歲月을 보냈구려.兄의 情熱 참 부럽소.³³⁾

내 수첩에는 지금 이런 기록밖에 없다.

불안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죄를 구성(소설)/그래도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보다(소설)/회충과 석공(공트)/가래침과 금붕어(소설)/이놈의 모가지(수필)/웃음(수필)/生活路(發作)(소설)

나만 아는 비망의 기록이다./내가 살지 못한 생활을 적어 둘 생각도 않고 그래도 무엇을 써 보겠다는 알뜰한 의욕에서 이런 것만 소중했다./그러나 나는 이것들을 작품화하지 못했다. 창작이나 수필의 청탁이, 실로 간절한 청탁이 1년이 아득하게 넘은 것도 있건만, 나는 이 가운데서 하나도 빼내지 못했다.³⁴⁾

1939년부터 1956년까지의 글들에서 계용묵은 한결같이 창작이 더디고 제대로 되지 않는 데 따른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제주에서의 3년 반은 그런 계용묵의 안타까운 심정의 한가운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계용묵의 제주에서의 문학 창작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도 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백치 아다다」가 영화화됨을 계기로 단편집을 냈으면 하는데, 탐라일보에 연재했던 「수업료」가 없으니 수소문해서 찾아 보내달라는 서신을 받았었다.

32) 계용묵, 「창작 일기」, 《조선문학》 제20집(1939.7); 『계용묵 전집 2』, 122쪽 재인용.

33) 계용묵, 「김환기 형」, 《신문화》 제2호(신문화사, 1952.9), 27쪽.

34) 계용묵, 「꿈을 새긴다」, 《사상계》(1956.1); 『계용묵 전집 2』, 164~165쪽 재인용.

마침 탐라일보는 폐간된 뒤였고, 그 신문에 관계됐던 분들을 찾아 헤매어도 보관한 이가 없어 신문광고까지 내봤으나 허사였다. 그 작품은 영원히 사라진 셈이다.³⁵⁾

‘탐라일보’는 ‘탐라신보(耽羅新報)’의 오기(誤記)이고, 소설 「수업료」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언급도 오해다. 「수업료」가 《탐라신보》에 연재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주에서 창작한 작품이 아니다. 「수업료」는 이미 1950년 1월 《신경향(新京鄉)》에 발표되었던 작품이며 지금도 그의 작품 선집에 엄연히 남아 있다. 동인지 《흑산호》에 실린 단편 「물매미」도 1950년 4월 《문예》에 발표했던 작품을 다시 수록한 것이지 새로 쓴 작품이 아니다.³⁶⁾

계용묵이 제주에서 썼거나 제주에 관해서 쓴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지금까지 확인된 작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표> 계용묵의 제주 관련 작품 목록³⁷⁾

장르	작품 제목	발표지 (발표 시기)	비고
소설	「맨발」	《현대문학》 1961년 7월	『설수집(屑穗集)』 연작의 하나
수필·산문	「탐라점철(耽羅點綴) 초(抄)」	《제주신보》 (1951~1954?)	『노인과 닭』(범우사, 1976)과 『한국문학전집』 36권(민중서관, 1960) 수록
	「김환기(金煥基) 형(兄)」	《신문화》 1952년 9월	
	「제주풍물 점경(濟州風物點景)」	《문예》 1953 년 6월	
	「소설가란 직업」	1955년	『노인과 닭』 수록
	「악(惡)의 성격」	1956년	『노인과 닭』 수록
	「제주 여자의 건강과 미」		『계용묵 전집』(민음사, 2004) 수록

35) 김영돈, 앞의 글, 40쪽.

36) 김동윤, 앞의 글, 291~292쪽.

37) 이 목록 작성에는 민충환 유음, 『계용묵 전집』(민음사, 2004)이 큰 도움이 되었다.

소설 1편, 수필·산문 6편이다. 이 외에 《제주신보》 등에 발표한 작품이 더 있을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설 「맨발」과 수필 「악의 성격」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맨발」은 「악의 성격」을 소설화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계용묵은 ‘설수집’이라는 제하의 연작을 쓰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생전의 맨 마지막에 발표된 작품인 셈이다. ‘설수집’은 《현대문학》 1961년 2~7월(4월은 쉼)까지 연재되던 작품으로 9편의 짧은 이야기가 5회에 분재되어 있다. 7월호에서는 편집자가 ‘수필’로 분류하긴 했으나 작품의 맨 뒤에 작가가 “이 이야기는 언젠가 隨筆 형식으로 썼던 것을 창작화한 것이다.”(223쪽)라고 명시한 것을 보면, 계용묵은 수필이 아닌 소설로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수집’은 장편(掌篇) 연작이라고 할 만하다. 소설 「맨발」의 내용은 이렇다.

- ① ‘나’가 제주읍내 동백다방에 앉아 있는데 시 쓰는 후배 왕군이 불손하게 집주소를 묻고 간다.
- ② 똑같은 피난민의 처지에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던 터에 왕군의 그런 태도를 보이자 나는 매우 당황하였다.
- ③ 귀가해서 저녁을 먹은 직후 왕군이 남루한 차림의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한다.
- ④ 왕군은 고아원에 온 구제품 중 몇 점을 골라 우리집으로 보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나를 원망하고 있었는데 심부름을 맡은 그 아이가 중간에서 팔아먹었음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다.
- ⑤ 왕군은 아이에게 사과하라고 하지만 아이는 완강하게 버틴다. 고아원으로 나온 구제품을 왜 나눠주지 않는냐고, 자기는 양말 한 켤레도 얻어 신지 못해 맨발로 다닌다고 항변하는 것이었다.

수필 「악의 성격」과 소설 「맨발」이 다른 부분은 ③과 ⑤다. 물론 수필은 계용묵이 실제 겪은 것을 꾸미지 않고 글로 옮긴 것이고, 소설은 거기에 상상력을 발휘해 허구화한 것이다. 제재가 같은 경우이기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피면 소설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③의 경우 수필에서는 저녁 식사 후 다방에 갔다가 그와 다시 만나는 것

으로 되어 있으나 소설에서는 저녁 후에 왕군³⁸⁾이 직접 집으로 찾아온다. 이는 공간 이동과 사건의 발전을 연계시키려는 작가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다. 한 장소에서 다시 만나는 것보다는, 공간을 이동하여 집까지 기어코 찾아오게 하는 것이 훨씬 역동적인 사건전개 방식이다.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새로이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수필의 경우 아이가 직접 등장하지 않았는데, 소설에서는 왕군이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다는 점도 다른 부분이다.

열다섯은 역력히 되었으리라, 양쪽 팔고비 부근이 여지없이 헤어져서 너 불거리는 거무스름한 끼어진 쉼타에, 역시 무릎마디가 들창이 난, 무슨 빛깔 인지도 알 수 없이 변색이 된 흙빛에 가깝다고 해야 할 쓰봉을 그래도 웃어 라고 켜 허름한 웬 아이 하나 (...)³⁹⁾

아이의 남루한 차림새가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독자의 시선은 이제 점차 이 아이에게로 옮겨지게 된다.

⑤는 수필과 소설이 가장 크게 다른 부분으로, 두 작품의 차별성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소설의 주제와 연결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수필에서는 “만일 그 고아가 딴 사람 것은 전하고 내 것만을 횡령했던들 나는 움 짝 못하고 그 친구의 오해에 봉변을 당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그와 나와 사이는 풀릴 길이 없이 영원히 멀어지게 되었을 것이다.”⁴⁰⁾라고, 오해와 봉변에서 벗어나게 된 자신의 상황에 안도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소설은 전혀 다르다.

“왜 때리세요? 선생님!”

그 아이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무엇이! 왜 때려? 모르젠 이 새끼!”

“아니 그럼 고아원으루 나온 구체품을 고아들에겐 안 노놉 주구…… 전

38) 수필에서는 ‘그’로 소설에서는 ‘왕군’으로 지칭하고 있다.

39) 계용목, 『맨발』, 『계용목 전집 1』, 510쪽.

40) 계용목, 『악의 성격』, 『계용목 전집 2』, 138쪽.

양말 한 켤레도 못 얻어 신었어요. 보세요 전 맨발이에요.”

하고 그 아이는 무릎 아래다 깔고 앉았던 맨발을 들썩 하고 드러내 보인다.

“이 새끼가! 이 버르장머리가!”

하고 다시 왕군의 손은 그 아이의 뺨으로 한층 더 힘차게 건너가 부딪쳤다.

“때리긴 왜 자꾸 때려요. 사실이 안 그래요 그럼?”⁴¹⁾

「악의 성격」에 비해 고아의 처지가 훨씬 부각되고 있다. 구체품이 나오긴 해도, 그 혜택이 정작 고아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다. 고아원의 아이들이 양말 한 켤레도 얻어 신지 못해 한겨울에 맨발로 다니는 현실, 그러면서도 냉대를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계용목이 제주에 머무르던 시기에 제주에는 많은 전쟁고아들이 들어와 있었다. 1950년 12월 24일 서울에 소개령(疏開令)이 내려지면서, 서울시립아동양육원에 있는 고아 1000여 명을 수송기 7대로 16회에 걸쳐 제주도로 운송하여 제주농업학교에 수용하면서 한국보육원(원장: 황운순)이 설립 운영되기도 하였다.⁴²⁾ 《신문화》 제3호에 실린 옥파일의 시 「고아(孤兒)」도 이러한 전쟁고아의 비애가 잘 드러난 작품이다.⁴³⁾ 계용목도 당시 제주에서 전쟁고아의 현실을 목도하고서 그것을 간결하면서도 인상적으로 형상화한 셈이다. 그의 경우 수필에서는 고아의 처지에 대한 관심을 그다지 드러내지 않았지만, 소설에서는 시각을 좀 달리하여 고아의 안타까운 상황에 크게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맨발」은 ‘나’를 중심으로 전쟁기 피난지에서의 곤궁한 삶을 그려내는 동시에 ‘아이’를 중심으로 전쟁고아들의 비애와 원망(怨望)을 적절히 담아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수필·산문들에서는 주로 제주의 정경과 풍물, 제주여성들에 대한

41) 계용목, 「맨발」, 513~514쪽.

42) 김봉옥, 앞의 책, 309~310쪽.

43) 어느 삶이 홀리고 간 悲哀기에/너는 왜/늙은 孤兒를 아버지라 부른다든/춘아/너는 어쩔할 수 없는 오늘의 運命도 모르고/아버지만 아버지만 부른다든/춘아/네 엄마는 어디에 사렀다든/너는 왜 對答도 없어/엄마보다 기다리던 救濟品은/많이도 왔구나/어느 삶이 홀리고 간 悲哀기에/왜/너는 깨지도 못할 꿈을 기다리니/춘아/冬栢꽃이 떠러진다/너는 네 가슴을 받고 간/오늘의 歷史가 미워/그렇게도 눈을 흘리며 가누나 (하략).

인상 등이 형상화되고 있다. 중복되거나 비슷하게 씌어진 부분들도 꽤 있다.

『제주풍물 점경』은 ‘삼성혈·산지항·시일(市日)·돌·바람·여인·해녀·무녀·소·말’ 등에 대해 2~5 문장씩 간결하게 기술하고 있다. “요람(搖籃)을 떠나면 구덕짐이 의무. 구덕과 더불어 자불서 구덕과 더불어 늙은 여인들. 제주를 지키는 거창한 장성도 이 여인들의 구덕짐에서 이루어졌거니.”⁴⁴⁾에서 보듯이, 메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글이면서도, 대상의 지배적 인상들을 적절히 꼬집어 요약한 점이 주목된다.

『탐라점철 초』⁴⁵⁾는 《제주신보(濟州新報)》에 연재되고 나서 『노인과 닭』을 엮을 때 가려뽑아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⁴⁶⁾ ‘탐라점철 초’라는 제목 아래 씌어진 ‘바다’, ‘여인’, ‘돼지’, ‘까마귀’, ‘소’, ‘바람’, ‘쥐’, ‘말’ 등 8편⁴⁷⁾에는 제주의 독특한 풍물들이 간결한 필치로 묘사되어 있다. 『제주풍물 점경』을 토대로 『탐라점철』을 썼거나, 아니면 『탐라점철』을 발췌·요약하는 형식으로 『제주풍물 점경』을 쓴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두 작품은 연관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여인』에서 “여인은 짐을 진다. 어려서부터 짐을 지는 데 그 연유가 있었다. 여인치고는 노유(老幼)를 물론하고 구덕(대바구니)을 안 지는 여인이 없다. (...) 온갖 생활수단이 이 구덕의 등짐에서 영위되는 것이다. 제주도 여인의 등에는 이 구덕이 실로 하루도 떠나는 일이 없다.”⁴⁸⁾라는 대목을 보면 그런 점이 확인된다.⁴⁹⁾ 다음은 ‘바다’의 일부다.

야하아, 해녀(海女).

하늘 끝과 맞닿은 듯이 보아도 보아도 끝이 없는 미안한 바다, 하얗다 하얗다 못해서 새파랗게 짙은 비취빛의 물결, 이 물결을 넘어 뛰는 파도, 파도

44) 『제주풍물점경』 중 ‘여인’ 전문(全文). 『계용목 전집 2』, 127쪽.

45) 여기서 ‘抄’라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다른 작품들이 더 있는데 발췌해서 실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46) 당시 신문은 유실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노인과 닭』 122쪽에는 《제주신보》에 발표되었던 작품을 명기해 놓고 있다.

47) 이 8편이 ‘탐라점철 초’라는 제목 아래 묶여져 있지만, 각각 별개의 작품으로 취급되어도 무방하다. 연작수필로 볼 수도 있겠다.

48) 계용목, 『노인과 닭』, 110쪽.

49) 위 단락에 예시한 ‘여인’ 항목과 비교해 볼 것.

의 주악 속에 고스란히 잠긴 바다, 이 바다 위에 해녀는 뗏다.

머리에다는 수건을 동이고, 적삼으로는 유방(乳房)을 가리우고, 잠방이로는 허복부(下腹部)를 거뜬히 감춘 다음, 팔목에다는 ‘피창’을 걸고, 가슴에다는 ‘태박’을 가슴에다 안고 휘파람을 휘이휘 불면서 개구리처럼 버지력버지력 물을 밀고 나간다. 나가다가는 곤두박질을 친다. 두 다리를 종긋이 모으고 하반신(下半身)을 수면 위로 공중 꽃꽂이 거꾸로 올려비치며 잔뜩 팔마, 물속으로 달려드는 그 날램이란 마치 물속에다 쓴 사람의 화살이었다. 물속을 헤어드는 고기를 쫓아 들어가 ‘소살’로 쓸 작전이니 오죽 신속해야 할 것 이련만 육지에서의 동작보다 오히려 날랜 데는 자못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파도의 주악에 잠긴 한바다 위에 오리떼처럼 똥똥 떠서 오거니 가거니 서로 엇갈려 돌며 나왔다 들어갔다 물속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이 해녀의 작업 풍경이야말로 제주 바다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이다.⁵⁰⁾

해녀의 작업 광경을 중심으로 제주 바다의 정경을 그려내고 있다. 다소 낭만적으로 제주해녀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깔끔한 문장으로 제주 바다의 정경을 포착한 수작(秀作)이라 할 만하다.

「소설가란 직업」은 제주읍의 카네이션 다방에서 겪은 일을 회고한 글이다.⁵¹⁾ 마루방에 살던 그는 날이 밝으면 거의 다방에 나가서 살다시피 했는데, 그것은 “화로 하나 놓지 못한 이 마루방에 땡그라니 앉아서 엄습하는 한기를 이겨낼 도리는 없었”⁵²⁾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곳에는 가끔 미군들도 드나들었는데 소설가가 그렇게 가난하게 산다는 사실을 매우 의아하게 여기며 악수를 청하고 담배를 권하니 “제주 피난에서 글이 글로 통할 수 있었던 감격에 내 자신을 찾은 것 같”⁵³⁾더라는 것이다. 「제주 여자의 건강과 미」는 미발표작이었는데 『계용묵 전집』 발간 시에 수록한 것이다. 등짐을 지고 다니면서도 허리가 곳곳한 점, 쌍까풀이 쳐서 아름다운 눈매를 지녔다는 점

50) 계용묵, 『노인과 닭』, 107~108쪽.

51) 계용묵은 동백다방에 많이 드나들었지만 “문학감상이나 작품평과 같이 조용한 분위기가 필요한 때는 당시 칠성로 북쪽 골목길에 숨어 있던 ‘카네이션다방’을 많이 이용했다.”고 한다. 양중해, 앞의 글, 36쪽.

52) 계용묵, 『노인과 닭』, 85쪽.

53) 위의 책, 87쪽.

등으로 제주여성을 예찬하고 있는 것이 ‘탐라점철’의 「여인」과 비슷하다. 「김환기 형」은 김환기 화백이 쓴 「계용묵 형」과 함께 《신문화》에 실려 있다. 김환기는 계용묵의 소설집 『별을 헨다』의 표지화를 그린 적이 있어, 꽤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 전시회를 여는⁵⁴⁾ 김환기 화백과 서신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고달픈 제주생활 속에 작품 창작이 여의치 않은 데 따른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글이다.

한편, 제주에서 정리해 출간한 수필집 『상아탑(象牙塔)』(우생출판사, 1955)은 제주에 오기 전의 작품들만을 모아 출간한 것이다. 계용묵은 제주에서 몇 편의 외국작품을 번역해 고순하가 운영하던 우생당(우생출판사)에서 출간기도 했는데, 스투우 부인의 소설 『검둥이의 설움』, 앙드레지드의 소설 『배덕자(背德者)』, 톨스토이의 『참회록』 등이 그것이다.⁵⁵⁾ 일본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중역(重譯)한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한국전쟁으로 제주에 피난하여 3년 반 동안 체류했던 계용묵은 종합교양지 《신문화》(1~3호)와 동인지 《흑산호》 등의 발간을 주도하고 ‘별무리’모임을 비롯한 여러 문학청년들을 지도함으로써 제주문단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체류하는 입장에 있거나 홀로 틀어박혀 창작만 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생활인·문화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계용묵은 완벽주의적·결벽주의적 성격 등으로 인해 제주에서 많은 작품을 쓰지도 못하였고 제주와 관련된 작품도 많이 남기진 않았으나, 그 고찰

54) 오광수, 『김환기—영원한 방향의 화가』(열화당, 1997)에는 김환기의 부산 전시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개인전은 1952년 남포동에 있었던 뉴서울다방에서 가졌다. 대부분 부산 피난 시절에 그려진 소품들이었다.”(48쪽)

55) 고영기, 앞의 글, 53쪽.

의 여지가 그다지 없는 것은 아니다. 그의 제주 체험과 관련된 문학으로는 「맨발」이라는 소설과 「탐라점철 초」·「소설가란 직업」 등의 수필·산문이 있는바, 제주의 독특한 정경과 풍물, 제주여성들의 건강미, 피난지에서의 곤궁한 삶 등을 주로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맨발」은 피난민들의 어려운 처지와 더불어 전쟁고아들의 비애와 원망을 잘 포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제주 체험 관련 작품들은, 제주문학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계용묵의 후기 문학에서 좀더 비중 있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 핵심어: 계용묵, 제주 체험, 제주문단, 《신문화》, 《흑산호》, 「맨발」

<Abstract>

Kyeo Yong-mook's Experience in Jeju and His Literature

Kim, Dong-Yun

Kyeo Yong-mook sought refuge in Jeju during the Korean War. While staying in Jeju for three and a half years, Kyeo Yong-mook brought vitality into the Jeju literary circle. He led the publication of a general magazine 'Shin Mun Hwa (New Culture)' and a literary magazine 'Heuk Sah Ho (Black Coral)' and taught many literary youths. That can be seen as the product of his active participation in writing during his stay in Jeju as a local resident and cultured man, not just as a stranger.

The novel 'Bare Feet' and other essays are prime examples of his literary works related to his experience in Jeju. They illustrate Jeju's touching scenes and unique landscapes, the beauty of healthy women, the dire conditions of refugee life. More weight should be given to Kyeo Yong-mook's literary works reflecting his experience in Jeju.

- Key Words: Kyeo Yong-mook, Experience in Jeju, the Jeju literary circle, 'Shin Mun Hwa (New Culture)', 'Heuk Sah Ho (Black Coral)', 'Bare Feet'